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임 행진곡' 울려 퍼졌다

윤석열 탄핵집회 시작되자 '거리의 애국가'로 소개 한목소리로 제창 "같은 목표 이룰수 있어 뿌듯" 광주에 대한 미안함에 참석한 시민도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보수의 텃밭인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지난 14일 '임을 위한 행진곡' (임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대구-경북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의결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로 임 행진곡을 목 놓아 제창했다.

표결을 한 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경북 시민들은 동성로로 발길을 옮겼다. 시민들의 손에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집회가 시작되자, 집회 사회자는 임 행진곡을 '거리의 애국가'로 소개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화면 속 임 행진곡 가사를 따라부르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며 동성로를 가득 메웠다. 시위 현장 곳곳에는 손팻말과 함께 핫팩을 나눠주는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 카페에는 '시위에 참여하는 대구시민은 매장에서 음료를 무료로 드시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시민들은 "보수색이 강한 대구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촛불시위는 열렸다. 하지만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모인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오늘 의원을 투표 잘 해야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라고 감쪽 놀라기도 했다.

허명희(여·35·대구 수성구)씨는 이날 응원봉을 들고 혼자 현장을 찾았다. 허씨는 "지금까지 경상도는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2030이 바뀌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2차 표결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에서 "1980년 광주가 2024년 12월

우리를 이끌었고 광주시민의 용기와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하자 일부 시민들은 고개를 주억거리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경주와 진주, 삼천포 등 자신의 거주지에서 탄핵 집회가 열리지 않아 대구를 찾았다는 경북 시민들도 있었다.

구미에서 온 김영대(52)씨는 딸 김에서(12)양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여했다. 김씨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시위에 나왔다. 주말이라고 마냥 노는 것보다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있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이들 응원봉을 든 김양도 "뉴스로만 접하던 집회에 참가하니 느낌이 다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박현준(49·수성구)씨도 "대구 경북에서 사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대구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수만 명이 한뜻으로 모인 모습을 보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광주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장영옥(여·61·달서구), 노성현(65)씨 부부는 이날 손을 잡고 시위에 참여했다. 노씨는 장씨의 권유로 이날 처음으로 시위에 나왔다고 했다.

장씨는 "광주를 생각하면 눈물나고 감사하다. 계엄이 선포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려움을 느끼면서 홀로 맞서 싸웠던 1980년 그 날의 광주시민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하면 기만하 않아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제는 대구도 부패한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라의 존립이 달려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4일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안성완 기자

이상천(52·구미시)씨도 "광주는 떠올리면 애듯하고 미안한 도시"라며 "보수의 상징인 경상도도 많이 바뀌고 있다. 광주와 함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며 광주에 진 빚을 갚아 나가고 싶다"고 소원했다.

오후 5시께 탄핵안 가결 소식이 동성로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전해지자 시민들은 동성로가 떠나갈 듯한 폭발적인 함성을 쏟아냈다.

가결 소식과 동시에 이문세의 '붉은노을' 전주가

울러나오자 저마다 손에 든 응원봉과 피켓을 힘차게 흔들며 한마음 한뜻으로 환호했다.

친구 서봉연(12·대구시 동구), 배현준(12·동구)군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았다는 김문호(12·동구)군은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와서 혼날수도 있지만 아마 응원해주실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대구-경북 시민들은 가결 결과가 발표되고 전체 시위 일정이 끝난 뒤에도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자리에 남았다.

조다연(여·22·경주)씨는 "여언이 가지질 않는다. 올해 이룬 것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다 함께 이룰 수 있어 뿌듯하게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구=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 체포하라” 금남로·여의도에서 환호

4만여 시민 '광주시민 총궐기대회' 국회의원사당 앞 200만명 인산인해

"국민이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 광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금남로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일빌딩 앞 분무대부터 시작된 인파는 금남로공원 앞까지 4차로를 빈틈없이 메웠다. 시민들은 금남로 차도부터 인도까지 뺨뺨이 둘러앉아 '탄핵해', '찬성해', '투표해'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204표"를 말하는 순간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일제히 양 손을 들고 환호했다.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연호하고, 일제히 '파도타기'를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시민 임용진(48)씨는 아내 황은주(40), 아들 예준(10)군과 함께 집회 현장에서 탄핵안 가결 순간을 지켜냈다. 임씨는 "온 가족이 뭉쳐 탄핵에 힘을 보탠 보람이 있다"며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한심한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윤석열 사형' 손팻말을 흔들던 양귀섬(71)씨는 "탄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받는 범죄자로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시민들은 화가 났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분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도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는 시민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곳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가결 소식에 이어 거리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감격한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이도 있었다. 가결 순간의 감동이 가시지 않은 시민들은 해가 지도록 풍악을 울리는 팽과리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에 맞춰 응원봉 등을 흔들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서울 집회에서 만난 이모(여·26)씨와 한모(여·26)씨는 "지난주 주말 계엄군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소문에 국회 앞에서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달려가고, 힘을 합쳐 탄핵 목소리를 높인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웃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유영우(44)씨는 "계엄에 대해 배운 아이들이 '무섭다', '혼내달라'고 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기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언제 또 제2의 계엄이나 전장이 터질지 모르느라 위험한 나라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서울=장혜원 기자 hey1@

'촛불'은 민주주의 굳건히 지켜낸 원동력

'응원봉'으로 진화 희망메시지 전해

화염병이 난무하던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은 '촛불'을 들었던 현장에서 형형색색 응원봉이 물결을 이루는 축제의 현장을 뒀다.

머리띠 두르고 투박 쥐고 투쟁의 민중가요를 외치던 시위 문화는 K팝 아이돌 문화의 소비자인 젊은층이 참여하면서 응원봉을 흔들며 K팝 인기곡을 대장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됐다.

촛불집회는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효순·미선양 추모집회가 발단이 됐다. 당시 한 누리꾼이 촛불을 들고나와 효순·미선양을 추모하자고 인터넷에서 제안한 뒤부터다.

이전 1980-1990년대 집회·시위는 군사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를 규탄하는 시인, 단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가 충돌했다. 화염병과 최루탄은 빠지지 않았다.

이후 2004년 이라크 파병·노무현 대통령 탄

핵, 2008년 광우병 파동,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2019년 검찰개혁 등 굵직한 이슈 때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와 민주주의를 멈춰세운 무능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일부 정치인이 촛불은 빨리 꺼진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든 촛불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 됐다.

2024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탄핵 집회는 이제 저항의 상징에서 아이돌 팬덤들을 통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민중가요 '바위처럼'과 아이돌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를 함께 부르고 소녀시대의 '다만세' (다시 만드는 세상)와 '아파트 아파트'에 맞춰 다양한 모양의 야광봉을 흔들며 평화를 얘기하는 축제의 광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밀레니얼의 투쟁에 따라 민중가요 대신 'K팝'이 화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매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1월 0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이에이케이메디슨
전라남도 광양시 향남13로 23-7, 205호 (중동)
청산인 한광성

72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광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치 266-7801
	• 동 봉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8001	• 중 명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0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성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용 염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